

제 22 장 사도 행전 Tape #8111

바울은 이방인 교회들에서 모금한 현금을 극심한 재정압박을 경험하고 있던 예루살렘의 교회에게 주기 위해 그것을 가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이방인들 사이에 존재했던 일종의 벽들을 허물기 위해, 바울은 이방인들 교회로부터 헌물을 모았습니다. 이방 지역의 믿는 자들의 사랑과 후원을 예루살렘의 교회에 증명하기 위하여 그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기독교에 유대주의가 엄청나게 혼합된 그런 이상한 교회였습니다. 오늘날도 메시아를 고대하는 교제의 모임들 중의 어떤 곳에서는 그러한 경험을 아주 많이 하게 됩니다. 유대주의를 가진 이 정체성으로 자신들을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안식일의 예배로 돌아가려는 것과 음식에 대한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갈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방인 교회들에 있어, 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 꼭 유대인이 될 필요는 없다고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분께서 그분의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제사의식과 음식에 관한 율법과 이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왜 우리가 우리나라 우리 조상이 질 수 없었던 노예의 멍에를 그들에게 올려놓아야만 하는지를 물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에 도달한 믿는 자에게 경고하며, 유대주의와 희생 제물들로 돌아간다면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알리는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거의 새로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된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율법의 규칙과 규정들의 집착에 의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려는 그 시도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움이 율법으로부터 오거나 올 수 있다면, 그리스도가 헛되이 죽은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는 유대주의의 전통으로 회귀하는 것에 대한 경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통들은 매우 깊어서, 그것들이 사람을 하수구와 같은 부도덕에 머물게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유대주의와 기독교의 혼합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는 그들이 여전히 성전에 가고 있었고, 그들은 여전히 음식에 대한 율법과 음식의 규정된 것의 율법과 기타, 모든 것을 지니고 있었고, 그들은 믿는 이방인들을 마치 두 번째의 등급이나 수준의 믿는 자로 내려다보았던 것입니다. 즉 영적인 자랑과 같은 것인데, 음, 우리는 안식일을 지킨다, 그리고, 우리는 돼지고기도 안 먹는다고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한 단계 우위에 있다고 생각할 때 오는 일종의 자기 의로움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장애들을 깨뜨리려고 현금을 가지고 온 것이지만, 또한 바울은 오순절의 절기 동안에 거기 있기를 갈망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절기의 때에 예루살렘은 위대한 시간들이 되어, 수십만의 군중들이 함께 모입니다. 큰 공휴일이며, 축제하기에 아주 좋은 날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기에 좋은 날입니다! 바울이 거기에 있기를 원했던 것은, 지금 표면상으로는 이런 두 가지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거기에 있기를 원했고, 그 유대인들과 복음을 나누고 싶었다는 것이 아마도 세 번째 이유였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울은 항상 유대인들에게 복음 메시지를 가져가길 원했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에게 확신시키는데 그들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나갔을 때, 그는 보통은 먼저 회당으로 가곤 했습니다. 때론 여러 안식일 동안 회당에 있던 때도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성경구절을 들어 보이며 설명하곤 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관례였던 것이죠. 그들이 거절하면, 그 때에 그는 이방인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이방인들과 복음을 나누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16 에

쓰기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이, 로마서에 표현한 대로, 이스라엘을 향한 나의 마음과 기도는 그들이 구원 받는 것이라는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에 따른 내 형제를 위해서라면 하나님께 내 자신이 저주받을 수도 있다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만약 그들에게 도달할 수만 있다면, 그는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저주받는 것을 받아들일 만큼 유대인에게 도달하고자 깊은 열망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진리를 유대인에게 나누어야 하는 바울의 욕망이 얼마나 깊고 강렬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왔고, 그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바울더러 순결의식을 집행할 것과 젊은이들의 순결의식 행함을 후원하도록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이 거기에 바울이 있었다는 소리를 듣더라도, 그것이 교회 내부에 문제와 분란을 만들지는 않았을 것인데, 그 이유는 바울이 이방인에게 가르쳐왔던 은혜의 메시지를 그들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바울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아무런 갈등, 분란이 없기를 바라는데, 그러니, 나가서 순결의식이 필요한 자들과 당신 자신을 위해 후원해 주기를 바라네! 당신도 알지만, 나가서 순결의식을 행하면, 사람들이 와서, 바울, 여기서 무엇을 하시오? 라고 말할 것인데, 그 때 우리가, 당신도 알다시피, 그가 좋은[선한] 유대의 젊은이고, 음식에 대한 율법을 아는 자요, 의식과 다른 것들을 관례

에 따라 행하는 자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 중 몇에 의해 그가 일룩졌던 때는 성전에 있는 동안이었는데, 이 아시아는 바울이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쳤던 곳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아, 형제들아, 도우라! 고 그들은 소리치기 시작했고, 이어서, 이 사람은 세상을 돌아다니며,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하는 자였다고 하자, 그들은 바울을 치기 시작했는데, 그를 죽일 의도로 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날들 동안은 당번제로 추가된 로마 군사들이 있어서, 그들은 그 소동을 보았고, 달려 내려와, 폭도들로부터 바울을 구출한 뒤, 그를 보호소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안토니오 요새까지 와서 거기에 있는 배란다에서 유대인들이 모여 있던 성전의 산등성이를 바라보며, 바울은 군사의 총대장에게 머리를 돌려 헬라어로 말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이야기해도 좋겠소? 라고 하자, 총대장은, 당신도 헬라어를 할 줄 안단 말인가? 라고 물었고, 바울은, 그렇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총대장은, 나는 당신이 이집트인 줄 알았는데, 이전에 반란으로 사람들을 이끌던 이집트에서 온 자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아니오, 나는 꽤 훌륭한 도시, 다소의 시민이요! 라고 응답하자, 군사의 총대장이 바울에게 말할 것을 허락해 주었고, 바울은 그들에게 히브리말로 연설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히브리말로 연설하는 것을 그들이 들었을 때, 그들은 열심히 들었을 것인데, 자, 우리가 22 장으로 가게 됩니다.

1절 “여러분 형제들아, 아버지들아, 내가 이제 너희에게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 위대한 순간입니다! 이것이 그가 꿈꾸어 온 날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때입니다. 20여 년 전 그가 회심한 이래 갈망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육체에 따른 그의 친족들인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지고 있던 그 빛과 이해를 나눌 이 기회를 그는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수천의 이방인들에게 확신시킬 수가 있었지만, 그의 여전한 마음과 갈망은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라는 영광스러운 진리를 자기 백성이 발견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향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구약성경의 구절들에서 매우 분명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만약 바울이 그 구절들로 그들에게 꼭 보여줄 수가 있었다면, 예수님이 메시아였다는 것을 그들에게 증명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 확실했음은 너무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특유한 진리에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실 때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진리, 모든 사람이 이것을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매우 평범하고, 논리적이고, 아름답다는 것인데, 이것을 누구나 받는다는 것은 스틸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것, 사람을 하나님과 관계 속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보는데 실패할 사람은 확실히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생각에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너무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눈먼 자가 될 수 있는지, 그것이 놀라울 뿐입니다. 여러분이 그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매우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그들은 이해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갖지 못한 것처럼 보이며, 그들은 단지 보지 못합니다. 성경은(고전 2:14),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을 이해할 수 없고, 그것들은 영적으로야야 분별되기 때문에 알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귀가 먹은 사람은 심포니를 즐길 수 없고, 눈이 먼 사람은 해지는 것을 볼 수 없는 것은 그들이 그것들을 감탄하고 즐기는 기능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인데, 이와 같은 논리로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본성의 사람은 이것들을 이해하는 영의 기능이 부족한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당신의 이해력을 여십니다. 만약 하나님의 진리가 당신의 마음에 증거를 낳는다면, 당신은 그것을 읽으므로,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우, 그것은 흥분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것으로 당신의 마음을 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어떤 사람은 같은 구절을 읽을 수 있으나, 말하기를, 음 이 말씀은 무엇인지 모르겠어? 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무엇이 그렇게 흥분된단 말이요? 내가 보기는,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에 의해 이 일들을 이해하고, 감탄하고, 즐기는 기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회심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에 진리를 열어주심으로, 그가 특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실히 유대인에게 확인시킬 수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신들에게 변명할 것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절 *“그가 히브리말로 자기들에게 말하는 것을 듣고 그들이 더욱 잠잠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 얼마 전까지도 어깨를 짜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등, 온갖 행동을 하던 군중은 바울이 베란다, 거기서 히브리말로 그들에게 연설하니, 지금 조용합니다.

3절 *“진실로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라의 도시 다소에서 태어났고 이 도시에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자라며 조상들의 율법의 완전한 방식에 따라 가르침을 받았고 이 날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가지게 되었노라.”* 당신들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압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하나로, 당신들이 있는 거기에 내가 틀림없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비록 다소에서 태어났으나, 나도 유대인이요, 가말리엘 문하생으로 그 도시에서 자랐지만 말입니다. 내가 율법의 완전한 방식으로, 주요한 랍비인, 가말리엘에 의해 조상들의 법으로 가르침을 받았고, 그들의 열심을 알고 있기에 당신들과 같이 하나님께 열심이었습니다. 자, 그는 다른 곳에서(롬 10:2) 유대인에 관해 썼는데, 내가 그것들에 대해 증거 하기는,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했소.

그러나 이것이 그들을 모욕하는 것은 아니고, 그는, 단지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만큼 내가 열심이라는 말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절 **“내가 이 길을 핍박하여,”** (초대 기독교에서 그것은 길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길을 핍박했다고 말합니다.)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감옥에 넘겨 주었노니,”** 성경은 바울이 교회를 파괴시켰다고 말합니다. 그가 교회를 짓밟아 버리려는 시도에 열심이였으며, 이것으로 그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5절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도 다 나를 증거 하느니라 내가 또한 그들로부터 형제들에게 보내는 공문을 받아 다마스쿠스로 가서 거기에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들여 형벌을 받게 하려 하였노라.”** 율법 안에서 한 때 가졌던 의로움에 대해(빌 3:6)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이 그의 열심에 대해, 교회를 핍박하던 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핍박을 받고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위하여 열심이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율법을 위반하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위반하도록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들은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바울은, 내가 그 열심을 이해한다고 말했고, 나도 같은 길을 갔었으며,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기를 원치 않는 자들을 죽이려고 준비까지 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다마스쿠스로 가는 것은 주님을 부르고 있던 자들을 수감하기 위해 묶어, 예루살렘으로 도로 데려오기 위함이었습니니다.

6 절 **“내가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정오쯤 되어 갑자기,”** (바울이 그들에게 신학적인 논문을 주고 있지 않다는 것에 흥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의도였을지도 모르고, 이것은 단지 바울의 서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의 개인적인 간증으로 증거하고 있는데,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능력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여러분이 경험한 그 개인적인 간증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에서 하신 일에 대해서, 그 분이 당신의 삶 안에 행하신 변화들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종 당신이 줄 수 있는 가장 능력 있는 증거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라울 리스가 서서, 주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그의 간증을 나눌 때를 보았습니다. 혹은 마이크 맥켄토시도 그의 개인적인 간증을 할 때, 우리가 무엇이랄 말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 알다시피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거기에 [산 증인으로] 서 있으니까요. 삶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과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증거는 항상 위대한 간증을 만들기에, 바울은 그의 회심의 개인적인 간증을 그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와 나를 둘러 비추매,”** 7절 **“내가 땅에 쓰러져 들으니 한 음성이 있어 내게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8절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하니 그 분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조우입니다. 종종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종교적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관계를 원하시는데, 개인적인 관계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가 핍박하고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개인적으로 소개되고 있고, 거기서 주님이 그를 만나고 있으며, 거기서 주님은 그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몇 장을 더 가보면, 바울이 로마 총독인 벨릭스 앞에 서 있게 되는 것을 발견할 것이고, 그리고 베스도, 그 뒤 아그립바 왕입니다. 각 경우에 그가 변명을 하려고 그들 앞에 서 있게 되고, 각 경우에 그는 그의 회심에 대해 그들에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의 두 장에

있는 바울의 이 회심을 조사해 보게 될 것인데, 이는 그가 다시 변명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매년 그는 기회를 가지고, 심문에 필연적으로 직면하면,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 나눌 기회로 그것을 이용합니다.

당신이 기억하겠지만,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체포되어 통치자나 왕 앞에 끌려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은, 너희들이 무엇을 말할 것인가? 미리 생각하지 않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연설도 준비하지 말라! 그러나, 그 시간에 성령님께서 너희가 말해야만 할 말씀들을 너희에게 줄 것이니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신뢰하라!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증거를 위해 성령님이 너희에게 돌아오실 것을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통치자들 앞에서, 실상은 그가 아그립바를 회심시켜 보려고 했지만,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고, 그것을 개인적인 간증을 나누는 기회로 활용했던 것입니다. 여기 그는, 개인적인 조우로 주님을 우연히 만나고 있습니다.

9 절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참으로 그 빛을 보고 두려워하나 내게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은 듣지 못하더라.” 지금 이 점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으로, 9장에서 그의 회심의 설명과 그가 다시 그것과 연관되기 때문에, 거기에 불일치가 있는 듯하나, 이는 헬라어 본문에 의해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말해진 다른 곳에 보면, 그들은 소리를 들었다고 했으나, 여기서는, 그들은 나에게 말씀하신 그 분의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들었다는 것과 듣지 못했다는 것이 어떻게 같이 존재할 수 있단 말인가? 여기 헬라어, **fwnh[phone]**가 있습니다. 그들은 **fwnh [phone]**를 들었는데, 이 헬라어에서 영어의 단어, **phonics[정음법]**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소리를 들었는데, **phonics[정음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마도 히브리 언어로 말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직 학자들이나 되어야 그 히브리어를 알았을 것이니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마도 그에게 히브리어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들이 소리는 들었으나, 그들은 목소리를 듣지 못했으므로, 그것은 **phonics[정음법]**이며, 이해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빛을 보았고, 소리를 들었으나, 그 말씀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과 주님과와의 개인적인 조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일치가 있다, 있는 것 같이 보였으나, 헬라어로 가면 분명하게 됩니다.

10 절 “내가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이까? 하매,” (자, 이것이 회심인데, 만약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것을 당신의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 서서, 즉시 그 자신이 예수님의 주인 되심에 복종함으로,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마스쿠스로 들어가라 그러면 네가 하도록 정해 놓은 모든 일을 거기서 듣게 되리라 하시니,”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단지 다마스쿠스로 가는 것으로, 주님은 우리를 한번에 한 걸음씩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주 종종 하나님의 전[whole] 그림을 관독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네가 여기를 가게 될 것이고, 그것이 일어나면 네가 이것을 해야 한다고 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뒤, 네가 그것을 다 하면,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는 일들을 관독해 주시는 주님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한 번에 한 걸음씩 인도하십니다. 다마스쿠스로 가라, 거기서 네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너에게 말해 줄 것이니라!

11 절 **“나는 그 빛의 영광으로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그에게 비친 빛은 너무 밝았습니다. 정오의 빛보다 밝았습니다. 그 빛의 찬란함에 일시적으로 눈먼 자가 되었습니다.)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의 손에 인도되어 다마스쿠스로 들어갔노라.”** 자, 바울이 교회에 대해 살기를 내뿜었다고 말한 또 다른 기사가 있는데, 내가 의미하는 것은 그가 대제사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예루살렘을 떠났고, 이 믿는 자들에 대항하여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만나는 자들을 투옥하려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왔고, 그리고 등등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가 온순하게 손에 의해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잘 보지 못하는데, 당신이 알다시피 말입니다. 그는 주님과 그의 조우에서 찬란한 빛으로 도중에 눈먼 자가 된 것입니다. 바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자신의 그림을 그렸던 방향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말이죠.

12 절 **“또 율법에 따라 독실한 사람으로 거기 거하는 모든 유대인에게 평판이 좋은 아나니아라는 하는 이가,”**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독실한 사람이었고, 사람들로 부터 좋은 평판을 가졌습니다.

13 절 **“내게로 와 곁에 서서 이르되 형제 사울아 네 시력을 받으라 하며 그 즉시로 내가 그를 쳐다보았노라.”** 바울은, 내가 그를 볼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14 절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사 자신의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로우신 분을,”** [역자주, 영어로 볼 때, KJV 은 Just One 인데, 이것을 Righteous One 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보게 하시고 그 분의 입으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소, 바울! 그러니 당신은 특별한 도구가 되어야 하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니 당신은 그 분의 뜻을 반드시 알아야만 하고, 예수님, 그 의로운 분을 보아야만 한다는 것과 그 분의 입의 소리를 들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썼을 때, 말했는데,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 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와 통하여 우리들의 것인 축복의 긴 항목들을 나열하기 시작하는데, 그 항목의 가장 먼저에는 창세전에 우리가 그 분 안에서 선택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진리인가!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었다니 우리가 그 분의 뜻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명철의 우리 눈이 비추이고, 열려지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분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 그 분이 메시아라는 것, 그 분이 우리의 죄들을 위해 오셔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들을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회심되어 구원받도록 이 진리를 알아야만 한다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도록 선택하셨습니다.

15 절 **“이는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그 분의 증인이 될 것임이라.”** 그래서, 여기 바울은 그가 본 것과 들은 것에 대해 증인으로 감당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그의 경험의 간증을 나누는 것이 바울의 사역이었다는 말입니다.

16 절 **“이제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침례를 받고 네 죄들을 씻어 버리라 하더라.”** 왜 기다리는 거요? 바울! 일어나, 침례를 받으시오. 당신이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당신의 죄들을 씻기 바라오!

17 절 **“그 뒤에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지금 바울은 여기에 3년의 간격을 두고 있습니다. 다마스쿠스에서 바울의 회심의 시간으로부터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3년이란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3년을 아라비아 사막에서 보냈던 것입니다. 이 3년 동안은 예수님과 고독하게 보냈던 시간입니다. 바울은 나갔고, 거기서 3년 동

안, 성경구절의 이해에 바울의 마음이 열리도록 예수님은 그에게 사역하셨습니다. 무슨 전적으로 대변동을 일으키는 경험이 바울을 위해 있었다고 인식하기는 어렵습니다. 한 순간, 믿는 자들을 쓸어버리려고 결정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서, 바로 그 순간에, 믿는 자가 된 것을 압니다. 이방 세계에 그리스도의 진리를 나눌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3년의 간격이 있는데, 바울은, 이 광야의 경험 동안, 은혜의 복음을 받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무의식 상태에서,” 18 절 “보니,”** (또 다른 시간에 예수님께서 나가시어, 개별적으로 바울을 찾아가셨습니다. 그의 사역을 통틀어 주님은 여러 차례 그 곁에 서 계셨고, 그를 인도하셨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경우에 황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서둘러 예루살렘을 속히 떠나라 이는 나에 대하여 내가 증거 하는 것을 그들이 받지 아니할 것임이라 하시거늘”** 주님은 바울에게 훈계를 하셨습니다. 여기를 나가라! 그들은 너의 간증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19 절 “내가 이르되 주여 내가 모든 회당에서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또 때리고,” 20 절 “주의 순교자 스테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나도 곁에 서서 그의 죽음에 동의하고,” (혹은 투표하고,) **“그를 죽이는 자들의 옷을 지킨 줄을 그들도 아나이다 하니,” 21 절 “그 분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떠나라 이는 내가 너를 여기에서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낼 것임이라 하셨느니라.”** 지금 주님은, 바울이 그 처음 예루살렘에 왔을 때, 거기를 나가도록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주님과 논쟁하고 있다는 것을 노트하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주님과 논쟁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여러분이 단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뿐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 자신이 싸우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나, 주님은, 나는 그들이 느끼고 있는 것을 안다고 하십니다. 즉 주님, 나는 확실해요. 내가 그들을 확신시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바울아, 여기서 나가라! 고 말씀하십니다. 자 내가 믿기로, 바울은 20년 동안이나 주님이 틀렸다고 느껴 왔습니다! 바울은, 그의 마음 안의 깊은 곳에서, 내가 그들에게 전할 수만 있다면... 하고 느꼈음을 나는 잘 압니다. 내가 그들과 나눌 수만 있다면... 하고 느꼈으며, 어떻게 그들을 확신시킬 수 있는지 내가 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사람을 확신시키는 것이 지혜에 대한 우리의 말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틀림없이 가르칩니다. 그것은 성령님이십니다. 믿도록 그들을 도와줄 진리에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는 사람의 마음에 말씀하고 계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세상에서의 가장 큰 논쟁도, 가장 강한 변증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사람에게 확신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믿도록 그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신뢰하도록 믿음을 그들에게 주는 것은 그들의 마음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0년 동안 가지고 있으며, 물론 바울이 돌아온 것은 17년 전이었으나. 이 17년 동안, 음, 내 생각에 그가 주님은 사실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확신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그가 여기에 있습니다. 빛나고 있고, 여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당신은 내가 그것을 할 수 없었다고 생각하시죠. 당신이 아시지만, 그들이 듣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조용하잖아요! 당신 아시죠, 내가 그들을 손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바울이 이방인이라는 말을 언급하자, **22 절 “그들이 이 말까지,”** (이방인이라고 말하기 전까지,) **“듣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런 놈은 이 땅에서 없애 버리라 그를 살려두는 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다 하며,” 그를 죽이라! 엄청난 소동이 뒤따라 일어났습니다. 23 절 “소리를 지르고 옷을 벗어 던지며 먼지를 공중에 날리니,” 그들은 옷을 찢고, 공중에 먼지를 날렸습니다. 그들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그룹인데, 그만 바울이 단추를 눌러 버렸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혼란[무질서]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어깨를 매고, 그들의 옷을 찢습니다. 공중에 먼지를 날리고, 야단을 칩니다. 그를 죽이라! 그를 죽이라! 안토니오 요새를 향하여 큰 파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4 절 “총대장이 그를 성채 안으로 데려가라 명령하고 그들이 무슨 까닭으로 그에게 소리를 지르는지 알고자 하여 명하여 채찍질하고 심문하라 하며,” 당신이 보는 대로, 바울은 히브리어로 그들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로마 사람들은 그가 말했던 것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별안간, 그들이 알게 된 전부는 군중들이 광포하게 된 것뿐이었는데, 거칠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채찍질로 그들을 심문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는 그가 말한 것을 발견한 자에게는 3 등급을 주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지금 채찍질로 심문하는 이 방법은 사람으로부터 진실을 강요하기 위해 로마 관리들이 실행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기둥에 등이 펼쳐진, 팽팽하게 된 상태로 가죽 끈을 사용해 묶었을 것인데, 그들이 취한 채찍은, 그것에 뼈의 조각 같은 것과 유리조각이 매여 있는 가죽 채찍이었습니다. 살을 찢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군인이 등을 가로질러 채찍을 내려치기 시작하여, 그것을 낚아채면, 작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게 됐을 것입니다. 고통이 극에 달할 수밖에 없죠. 서기관들이 옆에 서있는 것은, 당신이 자백하게 되는 것을 잡아내려는 생각에서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잘못했는지 술술 자백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3 급 정도의 압박에 놓인 사람은 곧 모든 것을 쏟아내기 시작하고, 그가 알았던 모든 것을 말하기 시작했을 것인데, 왜냐하면 만약 여러분이 협조하고 입을 열어 알고 있던 것을 말하면, 그들은 채찍을 보다 가볍게 가지고 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거절하면, 고백이 강요될 때까지 더 힘들게, 더 힘들게 채찍을 내려쳤을 것이고, 많은 사람

들은 피를 너무 많이 흘리거나 고통이 너무 심해 채찍질이 끝나기도 전에 죽었습니다. 지금 이것은, 빌라도가, 예수는 반드시 채찍질을 당해야만 한다고 명령해서, 예수님은 그 채찍질을 경험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채찍질은 39 번까지였습니다. 성경에 40 이라는 숫자는 심판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40 일이라는 것을 읽을 때면 보통 심판을 말하고 있는 기간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당신도 기억하지만, 홍수가 왔을 때, 비가 40 주야로 내렸는데, 이는 하나님의 저주였기 때문이며, 이것은 수치 개념상으로 성경에서 심판의 수입입니다. 39 라는 숫자는 수치 개념으로 자비의 수에 해당합니다. 그리 많지 않는 자비를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공의는 자비로 완화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 채찍질은 보통 39 번이 되는 것입니다. 대언자는(사 53:5) 말하기를, 우리의 범죄를 인한 그분의 찢림을 예수님과 연관했고, 그분의 상하심은 우리의 불법들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분이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 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고 한 것이지요. 채찍질하는 것, 채찍이 등을 가로질러 놓였다는 말인데, 이것이 이사야에 의해 예언된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는(사 50:6),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내어 주고, 턱수염을 뽑는 자에게 내 뺨을 내어 준다고 말했습니다. 침을 빨는 것, 예수님께서 견디시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계속하여 말하기를, 털을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자기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잘못된 것에 대한 고백을 끌어내는 것이 그 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으나, 예수님은 고백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혹독한 채찍의 과정을 완전히 정면으로 맞았는데, 이는 채찍을 맞는 그 채찍질의 과정에 대한 고통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오, 우리의 훌륭한 구세주의 놀라운 사랑!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고통을 당하시다니! 우리의 범죄로 인한 찢림, 우리의 불법으로 인한 상하심!

그래서 그것이 매우 상식적이어서[그들은 바울이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를 채찍질하라! 저기 에서 그 소동을 만들도록 그가 말했던 것을 찾아라! 고 했습니다.

25 절 “사람들이 가족 끈으로 바울을 묶으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에게 이르되 너희가 로마 사람을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하는 것이 법에 맞는 것이냐? 하며,” 그것에 대한 사실은, 그것이 합법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세로는, 로마 사람은 결코 가족 끈으로 묶이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만약 로마 사람을 채찍질했다면, 이들의 죄의 값은 반드시 죽음에 놓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백부장에게 단지 질문을 하게 된 것인데, 즉 심판에 나가지도 않은 로마 사람을 당신이 채찍질하는 것이 합법적이냐? 고 말입니다.

26 절 “백부장이 이 말을 듣고 총대장에게 가서 전하여 이르되 행하시는 일에 주의하소서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니이다 하니,” **27 절** “이에 총대장이 와서 이르되 내게 말하라 내가 로마 사람이냐? 하며 그가,” (바울을 말합니다.) “이르되 그러하다 하거늘,” **28 절** “총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자유를 얻었노라 하니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 자유한 자니라 하니라.” 나는 로마인으로 태어났고, 나는 자유한 가운데 태어났다는 말이지요. **29 절** “이에 바울을 심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총대장도 그가 로마 사람인 줄을 알고 또 자기가 그를 결박하였으므로 두려워하더라.” 만약 잘못이 없다면, 로마인을 묶는 것조차도 합법적이지 못했으니까 말이지요.

30 절 “이튿 날 총대장이 무슨 까닭으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는지 그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를 결박에서 풀어 주고 수제사장들과 온 공회에게 출두하라 명령하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그래서, 지금 바울은 산헤드린 공회 앞에 공적인 청문회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울이 한 때 그 지체로 있었던 종교적인 몸통인데, 그러나, 지금 그들 앞에서 청문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갈 1:15)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준비하셨는지에 대해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구별하셨고, 하나님께서 항상 미리 그 도구를 준비하시는 것처럼, 그 분은 바울이 주님을 위하여 성취해야 했던 사역을 위하여 적합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준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태어남부터 매우 특별한 것으로 하나님에 의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로서 사역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을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게 한다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은 바울을 자유롭게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아버지가 로마를 위해 아마도 큰 공헌을 해서 가족의 구성원들이 자동으로 시민권을 보장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들은 종종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는 그리스의 문화를 이해해야만 했기에, 그는, 길리기아의 꽤 훌륭한 도시, 그리스 문화의 도시, 다소에서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는 어린 시절 아이들과 함께 집짓기 놀이를 하면서, 그리스의 문화에 자연스럽게 노출되었으며, 어린 시절의 공부를 그리스 문화 안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가,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유대인이었고, 대학에 갈 즈음에, 그의 아버지가 독실한 유대인이었기에, 그가 가말리엘 문화의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의 아버지는 그를 예루살렘에 보냈습니다. 이는 그 당시의 가장 존경받는 랍비 중의 한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도록 하여, 히브리 성경구절들을 많이, 그리고 철저히 이해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따라 본 모든 길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통틀어, 히브리 성경구절에 정통한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 그리스의 문화를 아는 것, 로마 시민권자로의 유익함을 갖는

것, 이방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져가도록 지식적으로 신랄하고 날카로움 등이 그것들에 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할 그릇으로 준비시키시는데 모든 방법을 쓰고 계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구세주가 나를 모든 길로 인도하시네, 내가 그밖에 가진 것이 무엇일

까?’ 당신이 알다시피, 주님을 섬기는 수년을 따라가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고자 하셨던 사역을 위하여 당신을 준비시키면서, 모든 길에서 주님의 손길이 당신의 삶에 있었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아도, 내가 가진 모든 다른 경험들, 배경들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이 태어나서부터,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나의 삶에 있었는지를 지금 깨닫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수주 전에 나의 사촌은 척추 뇌막염으로 죽었고, 내 누님은 척추 뇌막염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경련을 일으켜 숨이 멎었고, 눈이 돌아갔으며, 턱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나의 어머니는 교회로 가는 길을 달려 올라갔습니다. 목사가 교회 바로 다음 집에 살고 있었기에, 어머니는 생명이 없는 딸을 들고 거기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가 기도하니, 어머니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눈을 그 아이에게서 떼고 예수님께 돌리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좋은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어려움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 분은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알지만, 만약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면 그것은 반드시 더 크게 보이지만,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그 능력이 크시기 때문에 문제는 곧 사라져 갑니다.

그 때 나의 아버지는 당구장에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는 당구장의 상어였기 때문이죠. 그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돌아오는데, 거기서 일어난 일을 돌보았던 간호원이, 당신의 작은 딸이 죽었다고 말해 주고, 그래서 당신의 아내가 거리로 뛰어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즉 그 간호원이 그녀가 교회로 올라갔을 것이라고 말해 주었는데, 나의 아버지는 그 목사를 두들겨 줄 의향을 가지고 교회로 향하는 거리로 달려 올라갔습니다. 그는 딸을 데려다 병원으로 가서 적당한 치료를 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가 딸을 보았을 때는 너무 늦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무릎을 꿇고 주님께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나의 어머니는, 주님, 만약 당신이 이 딸을 나에게 다시 주시기만 한다면, 나의 삶을 당신에게 드리고, 당신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누님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고, 눈을 떴으며, 즉시 치료가 되었습니다. 두 달 후에 의사는 나의 어머니에게, 남자 아이를 가졌습니다! 라고 말했고, 어머니는 눈을 감고 말하기를, 주님, 나의 아들을 통해 내가 당신에게 맹세한 것을 이행하리라고 서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이일 때부터, 그녀로부터 성경구절들을 배웠는데, 그녀는 성경구절들을 암송시키기 시작했고, 아마도 어머니는 뒤뜰에서 나를 따라 다녔을 것입니다. 내가 그네를 타고 있었을 때, 그녀는 성경구절들을 인용했을 것이며, 내가 성경구절들을 암송하는 것을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내가 4 살이 되던 때, 읽는 것을, 성경으로 읽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큰 활자로 된 성경을 가지고, 그녀는 나에게 읽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에 있었음을 당신이 봅니다. 사역에 있어 우리가 통과했던 어려움, 사역에 있어 고난의 수년간. 어려운 시간들을 말입니다. 그것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준비의 한 부분이었기에, 나는 모든 길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뒤를 돌아보고 깨닫는 것은 스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작부터 당신의 삶에 그분의 손길을 가지고 계셨는데, 당신이 통과하고 있었던 환경들, 상황들 모두를 말합니다. 그것들은 섬김의 자리로 당신을 데려오는 모든 하나님 계획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분께서 쓰시기로 작정한 그릇들을 철저히 준비하십니다. 바울이 엡 2:10 에서 말하듯이, 우리가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된 자들이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약 우리가 마음을 연다면, 각자의 당신의 삶에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해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가끔 하나님께서 돌아서신 것처럼 보일 때가 있기도 하고, 가끔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포기하셨다는 생각을 하게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함해 보아야 몇 조각 밖에 가지고 있지 않는 퍼즐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가 그 분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조차도, 계속적으로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내를 가지시고, 천천히 그 조각들을 함께 갖다 놓기 시작하시고, 퍼즐이 완전히 갖추어 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때에 가서야 그 그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것 좀 보세요! 저 같은 아름다움은 꿈에서도 본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하게 됩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그 분께 양보되므로, 그 퍼즐의 조각들을 함께 놓도록 그 분께 허용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보입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 있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이방인에 대한 이 사역에 그를 맞추고 계십니다. 바울의 문제는 유대인들에게 봉사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야, 바울. 또한 그것은 당신의 소명도 아니란 말이요.

여러분이 아다시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시려고 하지 않는 어떤 것이 되어보려고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지도 않는 사역을 성취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행하신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행하시기를 원하는 것을 꼭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꼭 연안을 따라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은혜로운 것입니다. 나는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적이 없었던 것들이 되어보려고 노력한 나 자신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셔야만 했는데, 그 분께서 나를 만드시지 않은 어떤 것도 나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분께서 되라고 나를 만드셨던 것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삶에 임하는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각자에게 일하십니다. 그 분은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분은 여러분을 준비시키십니다. 그 분은 당신에게 배경을 주고 계십니다. 그 분은 당신에게 그 경험들을 주고 계십니다. 그 분이 당신의 삶에 그분의 영원한 목적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만큼 하나님의 계획의 모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분께 양보함으로써, 그 그림은 펼쳐지기 시작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가지신 그 목적과 계획을 분명히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전적으로 헌신될 때 그것은 놀라운 삶이 됩니다.

아버지, 당신께서 당신의 아들의 형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우리 안에 일하셨음에 대해, 당신의 성령께서 일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취해야만 했던 것을 전에 정하셨던 이 선한

일들을 위해 우리를 준비하도록 우리 안에서 일하셨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심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당신과 함께 동행을 하므로 매일 매일 당신의 계획을 여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